

충남서울학사관 STSS 예방 안내

최근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(Streptococcal Toxic Shock Syndrome)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도 및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에 충남서울학사관은 STSS 발생 예방·대처를 위해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관련 정보 및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안전하고 청결한 서울학사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
□ STSS 개요

- A군 연쇄상구균(GAS)에 의한 침습적 감염으로 인하여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질환
- **(임상증상)** 초기에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다가 고열, 발진, 저혈압, 호흡곤란, 괴사성 근막염, 다발성 장기부전 등 중증으로 진행
- **(감염경로)** 주로 **점막 또는 상처부위 등을 통하여 접촉으로 전파,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도 가능**
- **(백신 및 치료)**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은 없으며, 조기진단을 통한 항생제 치료가 중요
- **(유의사항)**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는 드물며,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되나, **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**

□ STSS 감염 예방 수칙

- 기침예절 실천
- **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**
- **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**
- **의심증상*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**
 - * 고열, 발진, 심각한 근육통, 상처부위의 발적, 부종 등
- **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상처부위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**
- **수두 및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권고**
 - * 인플루엔자 및 수두 감염시 A군 연쇄상구균의 감염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

□ STSS 관련 자주 하는 질문(FAQ)

Q.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(STSS)이란 무엇인가요?

- A군 연쇄상구균(Group A Streptococcal, GAS)에 의한 침습적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증 질환으로 점막 또는 상처 부위를 통해 주로 감염됩니다.
- 고위험군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층, 최근 수술받은 경우(상처가 있는 경우 등), 노출되는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경우(수두 등), 알코올 의존증, 당뇨병 환자 등이 있습니다.

Q. 성홍열과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(STSS)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- 원인병원체는 A군 연쇄상구균으로 동일하지만 성홍열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열, 인후통, 발진 등을 동반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치명률은 1% 이하입니다.
- 반면 STSS의 경우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호흡기 증상(고열, 오한, 근육통, 메스꺼움, 구토)으로 시작되어 저혈압, 빈맥, 호흡곤란, 피부괴사, 패혈증, 장기부전 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치명률은 30~70%(미국 CDC)로 알려져 있습니다.

Q.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

- 현재 A군 연쇄상구균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따라서 **개인 위생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준수, 식기류, 담요, 수건 등 개인용품을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, 그 외 인플루엔자 및 수두에 대한 백신접종이 권고됩니다.**

□ STSS 관련 학사관 권고 사항

- 서울학사관 재사 중 부득이한 경우 외에 일본 등 해외 방문 자제
- **일본 등 해외 방문 시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수칙 철저히 준수**
- 재사 중 일본 등 해외 방문 시 귀국 후 학사관 유선 연락